

대학에서 내가 배운 글쓰기의 원칙과 방법들

교수학습개발센터 기관지 <가르침과 배움>에 글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실을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저도 스스로의 글에 항상 부족함을 느껴 글쓰기를 좀 더 잘하기 위해 계속 애쓰고 있는 학생일 따름이고, 저보다 더 글을 잘 쓰시는 학우 분들이 정말 많기에 이런 글을 쓰는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대학에 들어와 학술적 글쓰기에 대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제법 글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한 명의 선배, 혹은 동료 학우로서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거나 생각이 아직 잘 정리되지 않은 후배들에게 약간의 도움이나마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 생각과 경험을 써보겠습니다. 또한 이 글은 제가 제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 ● ●
곽 태 현
 서울대 철학과
 학부생

'자비의 원칙(principle of charity)'의 힘

좋은 글쓰기는 좋은 글 읽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점에서 글을 읽는 태도 중에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학년 1학기 한 교양수업에서 존 로크의 『통치론』을 읽고 처음으로 간단한 '서평'을 쓰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감상 위주로 써도 무방한 '독후감'과 책에 대한 나름의 학제적인 비평을 해야 하는 '서평'은 성격이 다르기에, 저는 책의 논리 전개에서 제가 비평할 수 있는 지점들에 매우 신경 쓰면서 책을 읽고 문제점들을 꼼꼼히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담당교수님께서 제 서평에 대한 코멘트에서 '책을 꼼꼼하게 읽고 자신의 사고로 책과 대결하려 한 점'을 좋게 평가해주시면서도, '자비의 원칙'에 따라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자비의 원칙', 혹은 '자비의 원리'란 상대방의 말이나 글을 최대한 유리하게 호의적으로 해석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어떤

글들은 저자의 시대적·사회적 배경, 문체, 글의 종류나 목적, 혹은 글을 읽는 나의 선입견 때문에 논리적 허점이나 문제 있는 내용들이 쉽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이 그 사람을 전부 파악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글이 지닌 가치의 전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글을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빈 부분들을 채워주고 상대의 의도나 글의 논리를 호의적으로 해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배운 후로 저는 허점이 있어 보이거나 동의가 되지 않는 글일수록 자비의 원칙에 따라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원칙에 따라 글을 독해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비의 원칙은 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독창적인 해석까지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서양근대철학> 수업에서 버클리(G. Berkeley)를 배울 때 처음에는 그의 철학이 좀 이상한 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비의 원칙에 따라 이론을 대하면서 이 견해의 설득력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 철학의 의의에 대한 나름의 해석·평가를 내리는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25회 우수리포트 공모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얻게 되었는데, 아마 버클리의 철학에 대한 나름의 이해와 해석으로 제 생각을 충실히 전개하려고 한 것이 좋게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자비의 원칙은 오히려 피상적인 비판이 아닌 논리적으로 탄탄한 비판을 가능하게 합니다. '최대한 논리적으로, 호의적으로 해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는 상대의 이론에 대한 가장 강한 비판이 됩니다. 모범이 될 만한 훌륭한 학술적 글들에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가장 유리한 해석에 따라 ('자비의 원리'가 아니라 '무자비의 원리'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정도로) 가장 철저한 비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장과 근거, 전제와 결론을 명료하게 나누기

글 읽기에서나 글쓰기에서나 주장과 근거 또는 전제와 결론을 명료하게 나누는 것은 결국 논리적·학술적인 글의 처음이자 끝과 같은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당연하기도 하지만, 잘하려고 할수록 매우 어렵습니다.

대학교 1-2학년 때, 방학 때마다 고등학생 대상 논술학원에서 조교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르치면서 배우다'는 흔히 하는 말처럼, 고등학생들의 논술을 상담하고 첨삭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글의 조건이 주장과 근거, 혹은 전제와 결론이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구성된 글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리포트를 쓸 때마다 내가 정확히 무엇을 주장하는지, 또 어떤 근거들이 주장을 지지해 주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글의 전체 구조를 구성하고, 문단과 문장 별로 이를 잘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 것 아닌 것 같고 당연해 보이는 것을 알고 정리한 것 하나로 대학 신입생 때보다 학술적·논증적인 글에 대한 제 이해도 늘었고, 리포트를 쓸 때마다 전체적인 평가도 더 좋아졌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저에게 여전히 어렵습니다. 글 전체, 곧 목차 단위에서 주장과 근거를 크게 구성했다면, 다음으로는 목차 안의 문단 단위에서 구성해야 하고, 문단 단위에서 구성했다면 다음에는 문장 단위에서 근거·전제들의 논리적 관계가 명료하게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짧게 써야 하는 글일수록 문장 하나하나의 순서도, 문장 속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도 굉장히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길게 써야 하는 글은 글 전체의 논증이 섣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짚어가고, 읽는 사람에게도 잘 드러나도록 써야 합니다. 제26회 우수리포트 공모대회에서 운이 좋게도 또 다시 장려상을 수상하게 된 리포트가 이런 경우였습니다. 15페이지 이상의 학술논문 분량으로 한 편의 소논문을 완성하는 과제였는데, 그 때까지 쓴 글 중 가장 긴 글이었기에,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전체 논증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결과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세심하게 긴 호흡의 글에 담아낸 것에 좋은 평가도 받았지만, 독자에게 전체를 깔끔하게 전달하는 데에는 아쉬움도 많았던 글이었습니다.

다음번에, 아마도 학부 졸업논문을 쓸 때는 그런 점을 보완해서 좀 더 잘 써보고 싶습니다. 아마 ‘주장과 근거’를 잘 쓰는 것, 달리 말해 세부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논증이 유기적으로 조직된 글쓰기는, 평생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언어로 쓰기

글을 잘 읽어 다른 이론·견해를 잘 이해하고, ‘논증’이라는 학술적 글의 형식적 조건을 지킨 후에는, 대학에서 수도 없이 배우게 되듯이 ‘나의 생각과 언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학술적 글쓰기가 완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술적인 글은 학문적인 가치가 있는 글, 조금이라도 학계에 기여하는 글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언어로 글을 쓰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교수님께 배웁니다. 또 철학이라는 제 전공에서는 글쓰기에서 특히나 ‘자신의 생각’을 논증적으로 전개하는 훈련을 주로 받습니다. 그래서인지 감사하게도 지난 2번의 우수리포트공모대회에서 공통적으로 제 생

각과 언어를 끈기 있게 풀어냈다는 점을 좋게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제 언어로 글을 쓰기 위해, 항상 쉬운 말로 쓰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몰랐던 이론들을 배우고 생각해서 쓰는 것이고, 몰랐던 어려운 개념과 이론들을 쉽게 풀어서 이해하고 있지, 어려운 용어와 표현 그대로 제가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하는 과정과 내용을 글에 담고, 교수님이 우리에게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듯이 이 내용을 모르는 친구라도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나아가 설득될 수 있을 정도로 쓰고자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고유한 해석이나 이해, 자신의 새로운 문제제기, 자신의 표현 등등 조금이라도 나름의 학문적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맺는 말

이 글은 제가 글쓰기를 배운 경험과 생각들을 정리하는 글이기도 하고, 제가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을 반성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후배 여러분들도 각자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각자의 글쓰기 방법을 만들게 되겠지만, 저의 경험과 생각에서도 얻어갈 것을 찾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것을 쉽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저에게 글쓰기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글쓰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을 뚫고 하나의 글을 완성해냈을 때, 우리는 단순히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감정을 넘어서 “내가 나만의 무언가를 창조해냈다!”라는 뿌듯함을 얻고는 합니다. 저를 비롯해 후배 학우 여러분들 모두 글쓰기를 배우고 자신만의 글쓰기를 만들어나가면서, 글을 쓰는 일의 어려움, 중요함, 그리고 즐거움과 보람을 계속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